

## 하행괴사성 근막염 7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sup>1</sup>, 흉부외과학교실<sup>2</sup>

김철호<sup>1</sup> · 윤용로<sup>1</sup> · 이진석<sup>1</sup> · 이성수<sup>2</sup>

### 목적 :

경부 괴사성 근막염은 두경부의 천공관을 침범하는 드문 감염으로 빠른 진행을 보이며 주변조직의 괴사 등의 국소병변과 전신병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다. 비교적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호발하나 건강한 사람에서도 감염성 질환, 외상, 수술 등에 의해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부 괴사성 근막염이 근막을 따라 종격동으로 들어가 광범위한 봉와직염, 괴상농양을 형성하는 것을 하행 괴사성 종격동염이라 한다. 진단으로 1)구인두에 심한 감염성 염증, 2) 방사선학적 종격동염 소견, 3)수술 혹은 부검상

괴사성 종격동염이 확인, 4) 구인두 감염과 괴사성 종격동염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0% 전후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부와 종격동의 절개 배농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최근 7년간 본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경부괴사성 근막염 진단하에 치료 받던 24명 중 하행성 경과를 보인 7명을 경험하였다. 모든 예에서 경부와 종격동의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3명은 사망하였고, 나머지 치유된 환자에서도 1달 이상의 장기간의 입원기간을 요했다.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